



루터, 칼빈과 비교한 츠빙글리 신학의 특징적인 면들 II

1911년생인 고트프리트 빌헬름 로허(Gottfried Wilhelm Locher)는 1958년부터 1978년까지 스위스 베른(Bern)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의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담당하는 교수였다. 로허는 20세기 최고의 츠빙글리(Zwingli) 연구가이다. 이 글은 1966년 가을에 미국의 대학과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이다 (Gottfried W. Locher, *Zwingli's Thought: New Perspectives*, Leiden: E. J. Brill, 1981, 142-232). 또한 1962년 튜빙겐(Tübingen)에서 출판된 독일어 종교백과사전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RGG)* 3판 6권에 "Zwingli II: Theologie"라는 항에 실렸고 스위스 연속간행책자 *Zwingliana* XII/7/8(1967 1/2), pp. 470ff., 545ff.에도 실렸다. 축소판으로는 "The Shape of Zwingli's Theology, A Comparison with Luther and Calvin"이라는 제목으로 *Pittsburg Perspective*, Vol. VIII/2(June 1967)에 실렸다. 여기에 실린 글은 Zwingli's Thought, 150-160

홀드리히 츠빙글리의 발전

1. 삶과 사역

츠빙글리의 삶과 사역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바다에서 3500피트 높이에 있는 토겐부르크(Toggenberg)의 빌트하우스(Wildhaus)에서 1484년 1월 1일에 태어난 그는 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공무원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5살에 발렌(Walen) 호숫가 베젠(Weesen) 교구의 주임 신부인 그의 삼촌 바돌로메(Bartholomew) 츠빙글리에게 보내져 양육 되었다. 10살에 바젤(Basel)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 보내졌고, 2년 후에는 베른(Bern)으로 전학했다. 1498년, 14살이 되었을 때-그때 쯤 츠빙글리는 이미 도미니칸 수도원에 살고 있었다- 그의 삼촌은 그를 유명한 비엔나(Vienna) 대학에 보냈다. 1502년에 바젤로 전학했으며, 여기서 1506년에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해 9월에 콘스탄츠(Constance)에서 호헨란덴베르크(Hohenlandenberg)의 휴고 신부에 의해 사제로 임명되어 1506년에서 1516년까지 작지만 중요한 지역인 글라루스(Glarus)라는 곳에서 사제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아헨(Aachen)으로 순례 여행을 다녀왔고, 이 태리에 있는 두 개의 군부대 지도 신부로 활동했다. 교황과 맺은 동맹의 지지자였던 츠빙글리는 프랑스지지당을 배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인지델른(Einsiedeln)의 사제가 되었는데 그곳은 유명한 순례 장소였다. 이즈음 용병제도의 반대자였던 그는 길드들의 요구로 1519년 새해 첫 날, 취리히 성당의 시민사제직에 부름을 받았다. 그는 전통적인 강단 설교 순서를 버리고 성경이라는 완벽한 책에 대한 연속 해설에 기초한 복음적인 설교를 소개했다. 그의 몇몇 친구들이 지나친 열정으로 금식 규정을 어기자 츠빙글리는 그들을 변호했다.

사제가 활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가 나서서 1523년 1월에 1차 취리히 논쟁을 소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성경 권위의 원리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였

다. 츠빙글리가 67개 조항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것은 스위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츠빙글리의 〈조항의 해설과 정당성〉은 독일어로 된 최초의 개신교 교리 신학이며 그의 가장 포괄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형상들과 미사에 대한 이차 논쟁과 교회의 점진적 갱신이 이어졌다.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설교의 기초를 성경에 두어야만 했다. 개 교회들은 다수의 요청에 따라 다스려져야 했고, 형상들은 제거 되어야 했다. 죽은 자를 위한 미사에 헌납된 기부금은 학교와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되어야만 했다. 교회를 위한 설교와 더불어 행해지는 성경 해설을 위한 일종의 세미나와 같은 “예언회”의 발전도 있었다. 1525년부터는 성만찬을 위한 복음적인 집행부도 있었다.

같은 해에 츠빙글리의 가장 방대한 라틴어 작품인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한 주석〉(Commentarius de vera et falsa religione)이 출판되었다. 루터와의 성만찬 논쟁에 대한 글도 뒤이었다. 중요한 정치적, 신학적 논쟁이 그 후 몇 년간 일어났는데 그것은 농부들과 재세례파와 스위스 내부의 교황주의자들, 그리고 루터를 상대로 벌어진 논쟁들이었다. 츠빙글리는 1528년 베른(Bern) 논쟁에서 가장 큰 승리를 했는데, 이 논쟁으로 막강 권력의 도시가 개신교로 넘어 왔으며, 또한 제네바에도 종교개혁이 도입되었다.

개신교 자체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은 모임은 1529년 마르부르크(Marburg)에서 마르틴 루터와의 회동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모든 점에서 일치에 도달했다. 실제적인 차이점은 이러한 교리적 차이가 교회 분열로 이어져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츠빙글리는 이것을 부정했다. 위협을 느끼던 현들과의 긴장, 즉 점증하는 신앙고백적이고 정치적인 긴장은 결국 그 주들이 일으킨 유혈 공격에 직면하게 했다. 츠빙글리의 목표는 복음적인 설교를 위한 자유로운 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취리히와 베른의 거칠고 서툰 조치들은 스위스 내전을 일으켰는데, 이 내전에서 개신교도들은 무장해제되었다. 많은 수의 취리히 군대가 1531년 10월 11일 카펠(Kappel)에서 전사했고

"용감하게 싸운" 그 군중 사제도 죽었다. 그 결과 종교개혁 운동은 후퇴하는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레오 유트(Leo Jud)라는 뛰어난 결단력을 가진 츠빙글리의 동료와 그의 젊은 후계자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덕분에 취리히, 베른, 바젤, 샤프하우젠(Schaffhausen)은 이 도시들이 속한 지역과 함께 개신교로 남게 되었다.

2. 츠빙글리의 내적인 발전

츠빙글리의 내적 발전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국면들이 추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환경을 통해 츠빙글리는 그의 나라, 국민, 사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물려받았다. 비록 바젤과 베른의 라틴어 학교들이 인문주의 영향 아래 고대 역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운 삼학(trivium)의 학교 교육은 진부한 것이었다. 비엔나(Vienna)와 바젤의 공부는 철저히 중세후기의 스킨 라주의를 제공했을 것이다. 한 학기 정도는 파리(Paris)에서 보내었을 수도 있는데, 그곳은 토마스주의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문과대 교수들이 그 당시 인문주의에 반대했더라도 이 학생은 비엔나에서 인문주의에 대한 첫 인상을 받되 정확한 학문들에 더 많이 집중된 동유럽의 관점으로부터 얻었을 것이다.

츠빙글리가 글라루스(Glarus)에 있는 동안 스위스 연방에 대한 그의 애국심은 커져갔고 서유럽 인문주의의 대표자인 존경받는 에라스무스를 만났는데, 서유럽 인문주의는 학문에 대한 개인주의적이고 범우주적인 이념에 경의를 표했다. 이때가 츠빙글리에게는 무한한 평화의 시기였다. 동시에 그와 그의 친구들은 아주 특별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교육적인 열망을 정치적 교회적 개혁에 대한 소망과 결합한 스위스 인문주의였다. 아인지델른(Einsiedeln)에 있는 동안 헬라

어와 히브리어를 연구했으며 교부들과 헬라어 신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어거스틴도 연구했다. 1516년 말경에 성경의 수위권에 대한 원리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직접적인 결과이다. 달란트 비유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의무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간주된다. 츰빙글리는 후에 이것을 자신이 걸어 가야 할 복음적인 행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론을 제외하면 종교개혁 신학의 발전은 느리게 진행되었다. 1520년경 루터의 초기작품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개혁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츰빙글리는 라이프치히(Leipzig) 논쟁에서 루터의 확고함이 한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했다. 츰빙글리가 전염병 이후에 작곡한 찬송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개인적인 깊은 신앙을 나타내며,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경험은 인간과 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그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1522년 이후로 그는 은혜와 자유에 대한 생동감 있고 새로운 형태의 개혁주의 교리를 만들어 냈다. 이런 점에서 시작된 츰빙글리의 신학은 일관되게 죽을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증가되고 다양화되고 심화되었을 뿐인데, 예를 들면 히브리서의 기독교론이나, 재세례파와의 논쟁, 혹은 루터와의 성례전 논쟁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츠빙글리 신학의 주요 국면들

요소들과 동인들

츠빙글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긴장상태로 공존하는 지속적인 요소는 먼저 옛길(via antiqua)의 의미에서의 그의 스콜라주의인데, 이것은 토마스주의가 현저하지만 스코트주의(Scotist) 색채를 지니고 있다. 또 다른 지속적인 요소는 에라스무스적인 인문주의인데, 그가 종교개혁의 견해로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그 영향은 영과 혼을 플라톤적으로 이해한 것에서 드러나며, 또한 세속적인 작가들과 비교하여 개념들의 변화를 관찰하도록 했고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을 역사적, 비평적, 철학적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비엔나 인문주의는 츠빙글리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스위스 인문주의는 선에 대한 스토아적인 이상을 채택하고, 고전적 역사와 국가적 역사 양자 모두를 실례의 원리로 사용한다. 교부들 모두, 특히 갑바도기아 교부들과 어거스틴의 책들을 성경에 비추어 차등적으로 읽었다. 츠빙글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공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는 신약의 핵심 교리를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기독교론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은혜의 교리로, 히브리서에서는 희생 개념으로 생각했다.

개혁을 위해 츠빙글리가 노력한 동인들은 우선 인문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이 인문주의가 비록 교회와 사회를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널리 퍼져 있고 미온적이면서도 이성주의적인 개혁 이상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 동인들은 그의 공화국적 애국심에서, 그리고 기독교와 성도들을 위한 그의 목자로서의 열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재발견된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해석과 선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종교개혁 운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현재의 순간이 교회와 국가, 개인을 위한 종말론적인 결단의 때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확신은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츠빙글리는 여러 번, 다양하지만 조화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동인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국가의 안녕, 그리고 고통 받는 양심의 위안이었다.

여담

츠빙글리 자신이 이런 동인들을 얼마나 깊이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증거

는 1522년 8월에 작성된 <아르케텔레스>(Archeteles)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적인 포용력이 있는 콘스탄츠의 추기경 휴고 폰 호헨란덴베르크(Hugo von Hohenlandenberg)에게 자신의 활동을 설명하는데, 그를 상당히 신뢰했다(『쯔빙글리전집 비평 편집판』 *Huldreich Zwinglis Sämtliche Werke*, TV, 60 이하 Z로 약칭함). 서문에서 그는 내적인 발전에 대해 언급한다(현대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로마 가톨릭에서 인문주의자를 거쳐 마침내 종교개혁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츠빙글리의 모든 자서전적 발언 중에서 이 부분이(Z I, 259-61) 가장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 중요성은 지금까지 좀처럼 완전하게 인식 되지 못했다. 발터 쾰러(Walther Köhler)의 <홀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1943), 오스카 파르너(Oscar Farner)의 <홀드리히 츠빙글리, 2권: 종교개혁가로서의 발전>(Huldrych Zwingli, Vol. II: *Seine Entwicklung zum Reformator*, 1946), 혹은 아더 리히(Arthur Rich)의 <홀드리히 츠빙글리 신학의 단초들>(Die Anfän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 1949)에도 그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츠빙글리의 그것을 인상 깊게, 그리고 때로 한 단어 한 단어 인용한 것은 아우구스트 바우어(August Baur)의 <츠빙글리의 신학>(Zwinglis Theologie, vol I, 1885)의 공적이다. 불행하게도 바우어의 번역은 결점이 많고 특별한 성경 본문들에 대한 중요한 암시들을 간과했다. 예를 들면 261 면에서 츠빙글리가 에베소서 5장 13절과 요한복음 1장 9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Z I의 편집자들조차 눈치 채지 못했는데, 그 결과로 기독교적 전환점과 자서전적 전환점 모두가 주목받지 못한 채 지나갔다. 우리는 보다 나은 번역을 시도하겠지만(이것은 어렵다!) 독자들에게 우선 라틴어 본문을 소개할 것이다.

Z I 259 면에 그 설명이 있다: 그 종교개혁가가 원하는 것은 “나 스스로 아주 오랫동안 심사숙고해 온 것(quae ipsi nobiscum reputanimus tam diu, 직역: 우리 자신이 당신들과 함께 아주 오랫동안 심사숙고해 온 것)”은 콘스탄츠 법정

에 선 자신의 적들이 심사숙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져다주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킬 때까지” 심사숙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이것은 명백히”(Haec videlicet)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그것이 나를 강요하리라는 것을 당신은 모르느냐?”(Viden quid me cogarit?)는 말로 끝맺는다(Z I 261:38). 즉 “이 사람들(즉, 주교 법정에서)의 피 흘림 없는 충고(paraenesis)를 거부하도록 나를 강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당신은 이해하는가?”를 뜻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다. 인류가 한평생 구원을 얻고자 얼마나 걱정하며 안타달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그런 것을 너무 양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태초에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을 열망하는 결과이다(창세기 2:7). 하지만 이런 축복이 어떻게 발견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을 철학자들에게 묻는다면 그들 사이에 구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 누구든지 마음이 산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면 혼란과 착오가 이방인들에게 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전통들과 이 세상의 것, 즉 자신의 생각에 따라 구원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갈 4:3, 9; 고전 2:8, 20). 다른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의지한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 자신들의 견해를 인정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이 교차로에 왔을 때, 나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로?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로”라고 답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시절에 지혜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 직전의 사람들, 즉 지혜롭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그 때 우리의 적들은,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물었을 때처럼 식은 땀을 흘리며 침묵할 것이다(마 21:25이하). 만일 당신이 그를 계속해서 압박하면 그는 선조들에게로(ad veteres) 가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왜냐하

면 그가 선조들에게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인데,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선조들의 연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거룩성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다음과 같이 더 멀리 나아간다면: “선조들에게 조차도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성격과 다르거나, 대조적이기까지 한 모든 종류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 것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만일 그가 멍텅구리나 짐승이 아니라면, 그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영감으로부터 오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에서 온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눈부신 광채나 장식을 입고 드러날 때조차도,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모든 것은 속이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의 주요 동기이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며 지치고 추락한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이것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의심에서 벗어날 길을 내게 보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의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을(시119:20; 100:5).” 당신은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인간의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고 남는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면서 헛되이 나를 섬기고 있다(마 15:9).”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마치 우리의 충고가 필요한 것처럼! 마치,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면서도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되게 얻어맞아야 했던 게으른 종의 행동을 답습하려는 듯, 우리 자신을 위해 애쓰거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고안한 것, 그리고 겉보기에만 아름답고 선하며 거룩하게 보이기 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인정을 받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옆으로 제쳐두고, 주의 입에서 나온 것 외에는 아무 것

에도 아무 말에도 신뢰를 두지 않기로 했다. 자신과 하나님 둘 다를 잊어버리고 감히 자신이 만든 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제한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들 때문에 나는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 어느 것이 앞선 것인지(그 인과응보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조사에 나섰다(물론, “하나님의 것” 혹은 “신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의 고안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 조사하는 것). 특히 그 고안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상충할 때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조사 중에 다음 본문이 내게 떠올랐다: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분명해 질 것이다(엡 5:13).” 문자적으로 원문에 의하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빛에 의해 인과응보가 드러날 것이다.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라는 그 빛 안에서이며 그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밝힌다.”[요 1:9] 그리고 “모든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 영을 시험하라.”(요일 4:1) 내가 시금석을 찾고 있을 때 넘어지는 자 모두를 넘어뜨리게 하는 돌 말고는(벧전 2:7이하) 아무 것도 찾지 못했는데,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을 본받아 자신의 전통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는 자들이다(마 15:6).

따라서 나는 이런 주장들을 이 방법으로(즉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 후에 모든 교리를 이 돌에다 대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돌이 같은 색을 내거나, 교리가 그 돌의 명확성을 건디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나는 처음부터 그 안에 어떤 이상한 첨가물이나 불순물이 있는지 말할 수 있었다. 어떤 권력이나 위협도, 다시는 내가 신적인 것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인간적인 것을 믿도록 할 수는 없었다. 그 인간적인 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안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 고안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령했을 때, 나는 자신들의 생각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전혀 가치 없는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최악의 생각을 소중히 여길 때까지, 다음과 같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외쳤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행 5:29)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화가 있다.”(눅 6:26)라고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너희를 경멸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eritis)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눅 6:22; 10:20)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대적이 너희 지존자 앞에서, 내가 인간의 전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그것들을 무시하기까지 했다고 우리를 고소할 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차이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인간적인 것이 신적인 것과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세밀히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시 56:12; 라틴어 불가타 성경은 시 55:11). 내 이름이 비난 받을 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확신한다. 우리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가장 악평 받을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경배 되어질 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가 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이 보물(thesaurus), 즉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이다(마 6:21).